

타들어가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브라질 호도니아 주(州)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 피해 지역을 26일(현지시간) 한 농부가 반려견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군병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아마존 열대우림의 대형 산불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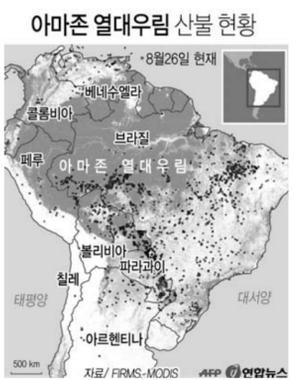
올해 산불 8만6천건 발생...축구장 4453개 넓이 숲 파괴

지구의 산소 20% 생산...범죄·부패 얽혀 벌목·방화 난무

브라질 정부, 산불 진화 재원 부족에도 국제사회 도움 거절

남미대륙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 걸쳐 있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 산소의 20%를 생산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이유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남미 8개국(프랑스령 기아나까지 합치면 9개국)에 걸쳐 있다. 전체 넓이는 750만km²에 달하며, 지구 생물 종의 3분의 1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현지시간)께부터지만,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은 9천500km² 규모로 변진 것으로 알려

졌다.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발생한 산불은 8만600여 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일어났다. 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이뤄지는 농경지·목초지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목과 목재 반출에는 어김없이 범죄조직과 정치인·경찰 간의 '어두운 거래'가 개입된다고 지적한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사실상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간주한 외지인들이 서류를 허위로 꾸며 토지를 강탈하는가 하면 다이아몬드·금 등을 캐려는 불법 광산업자들이 숲을 마구 파헤치고 있다고 NGO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 경찰, 단속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이 제공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브라질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에 설치한 '아마존 열대우림 태스크포스(TF)'가 1년간 벌인 조사에서만 축구 경기장 4453개 넓이인 3천180ha의 숲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에 이처럼 범죄 행위가 연루되면서 환경운동가들은 수난을 겪고 있다.

영국 환경단체 글로벌 워치니스(Global Witness)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2년 이래 브라질에서 활동하다가 살해된 환경운동가는 최소한 653명에 달한다. 환경운동가들에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군병력 4만4천여 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고, 국방부 장관은 "상황은 점차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피해 실태와 진화 상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지난 수년간 재정위기를 겪어온 탓에 산불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이 산불 진화 작업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인정한 가운데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 주지사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G7의 지원을 거부한 상태다. /연합뉴스

브라질 이웃 볼리비아도 숲덩이 울 레바논 크기 면적 소실...정부 '화전 허용' 원인 지목

아마존 산불 진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웃 국가 볼리비아도 대형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며 레바논 면적의 산림이 소실됐다고 A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리비아 토지산림 당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최소 3만

8천793건의 화재가 발생해 총 9천500km²(95만 헥타르)가 불에 탔다. 중동 레바논 면적이 1만400km²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한 국가 크기의 숲이 불에 타 사라진 셈이다. 화재는 주로 볼리비아 남동부 차키타니아 지역에서 일어났고, 브라질과 공유

하는 아마존 열대 우림도 피해를 봤다. 차키타니아 지역은 건조한 산림지대와 농지, 대초원 지대인데, 최근 몇 년간 농지로 개간되고 목장이 들어서면서 불이 더 빨리 확산했다. 수도 라파스의 생물학 대학은 잇단 화재로 11억 달러(한화 1조3천343억원) 규모의 목재가 소실된 것으로 추산했다. 화재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소방관과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등 3천500명 이상이 동원된 진화

작업을 둘러봤다. 볼리비아 정부는 지난주 미국에서 대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방용 항공기를 투입해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았지만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한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화재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부가 지난 7월 제한적이긴 하지만 화전을 허용하고 방화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日, 정부 비판한 시민 또 격리

경찰, 문부과학상 연설 중 '물러나라' 외친 대학생 강제 이동

일본 경찰이 선거 유세장에서 정부·여당을 비판한 시민을 다시 격리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이타마(埼玉)현 지사 선거 유세가 펼쳐진 JR 오미야(大宮)역 앞에서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문부과학상이 거리 연설을 하는 도중 대학생 A씨가 큰 소리를 외치는 등 도중 학생 A씨가 큰 소리를 외쳤다. 민간 영어능력시험을 대학입시의 영어 성적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경찰관들이 재빨리 A씨에게 달려와 유세장에서 떨어진 곳으로 격리했다. 이런 사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졌고,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 경찰이 시민을 격리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일본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시에서 거리 유세를 할 때에도 "아베, 그만둬라. 돌아가라"고 외친 시민을 강제로 이동시킨 뒤 격리해 경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것은 시바야마 문부과학상의 발언이었다. 그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선거 활동의 원활함과 자유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유세장에서) 큰 소리를 낼 권리는 보장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시개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대변해 문부과학상에 직접 주장을 호소하고 싶었다"며 "이런 목소리까지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국, 베트남 車 부품 공급 일본 제쳤다

올해 8353억 규모 전년비 58% 늘어...일본은 7% 감소

베트남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자동차 부품 공급 1위 국가로 등극했다고 타인 니엔 등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올해 들어 한국산 수입이 급증했지만, 일본산 수입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3억 달러(약 2조7천910억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과 용품을 수입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특히 한국산 수입이 작년보다 57.6% 늘어난 6억8천836만 달러(약 8천353억원)를 기록, 전체의 29%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를 차지한 일본산 수입은 4억3천189만 달러(약 5천237억원)로 작년보다 6.9% 감소했다. 이어 중국산 수입이 작년보다 15.7% 증가한 4억1천264만 달러(약 5천393억원)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日 규슈 '기록적 폭우' 48만명 대피

사가시 시간당 110mm·나가사키시 92.5mm '역대 최대'

일본 규슈(九州) 지방에서 28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48만여명이 대피했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부터 후쿠오카(福岡)현, 나가사키(長崎)현, 사가(佐賀)현 등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호우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호우 특별 경보는 일본 기상청이 호우와 관련해 발령하는 5단계 경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새벽 사가시와 나가사키시에서는 1시간에 각각 110mm와 92.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29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강수량은 나가사키현 히라도(平戸)시 495mm, 사가시 440mm를 기록했다. 이 두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8월 한달 강수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기상청은 역대 최대의 '기록적인 폭우'라고 설명했다. 오전 6시 현재 20곳의 관측 지점에서 범람 위험 수위 이상으로 하천의 물이 불어났다. 이번 비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후쿠오카현 구루메(久留米)시에서 10만명을 비롯해 22만5천 세대 48만명에 대해 즉시 피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31만세대 73만 명에게는 피난 권고가 발령됐다. 폭우로 인해 철도 운행 중단이 잇따랐으며 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사가현 다케오(武雄)시에서는 도로에 있는 승용차가 빗물에 휩쓸려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다. 비 피해가 우려되자 일본 정부는 이날 새벽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